

Caritas Sisters of Jesus

● Reflection on Laudato Si' 7 Goals ●

Laudato Si' Goals and Our Congregational Charism

Pope Francis has called for our response, expressing the seriousness of the suffering experienced by the planet and the poor in the words of a cry. This cry *impels* (2 Cor 5:14) the Caritas Sisters of Jesus to become more faithful to their spiritual and charismatic identity in response to today's ecological and social crisis.

The God of Israel responded with salvation to the *tse'aqah* and *ze'aqah* (esp. Exodus 3:1-12), which are *the anguished cry and plea of the oppressed*. We have received *Caritas* as our name, the love of God who acts for salvation. Therefore, we will respond to the cry of all creation in the continuity of the mission we have been carrying out concretely in response to urgent moments and diverse situations (C. 18). The deep compassion and merciful love of Jesus, who immediately recognized the plight of the vulnerable, will invigorate our responses (C. 14).

Toward a Vision of Integrated Ecology

Even when the ecological situation was not recognized as a crisis as it is now, the value of caring for and preserving nature was combined with the value of poverty in our religious communities. As a result, we were willing to put up with the inconveniences that such values demanded. The lifestyle of accepting such inconveniences went against the trend of society as it moved in an unsustainable direction, but while living in the era of the technocratic paradigm, we naturally accepted efficiency and convenience as criteria for our choices.

By listening to the cries of the earth, the cries of those who are forced into vulnerable circumstances along with the suffering of the earth, we are acutely aware that everything is closely interrelated, and today's problems call for a vision capable of taking into account every aspect of the global crisis (LS 137). Education or learning opportunities involving all members at the provincial and vice-provincial levels have provided opportunities to understand the complex crises of our time. This has confirmed the willingness of many members to live in a way that is in conformity with the vision of an integrated ecology, and they have begun to put it into practice in small ways.

There is a continuing need for education, especially concerning the goals of economic ecology. In solidarity and sharing with the poor, so far we have focused on thrift in spending money. However, in today's economic structure the experience often is that thrifty consumption and ethical choices in purchasing do not always coincide. This calls for education and sharing of materials on economic ecology, and efforts for moderation and courageous choices in consumption. The article on *The Characteristics of Poverty in Our Congregation* in the 2017 revised Constitutions, notes the need to share in the common commitment of the Church for social justice, peace, and protection of creation (C. 56). It is necessary to create a culture and to have systems in case of need at the level of the Congregation so that the practice of poverty is not confined to thrift in spending money, but leads to ethical choices in consumption and investment.



예수의 까리따스 수녀회

● Laudato Si' 의 7 가지 목표에 대한 속고 ●

Laudato Si'의 목표들과 수도회의 카리스마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지구와 가난한 사람들이 겪는 고통의 심각성을 ‘부르짖음’이라고 표현하며 우리의 응답을 촉구하셨다. 이 부르짖음은 오늘날의 생태적·사회적 위기에 대하여 예수의 까리따스 수녀들이 영적·은사적 정체성에 더욱 충실하게 응답하도록 ‘다그친다’(2코린 5,14).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는 ‘억압받는 이들의 고통스러운 외침과 탄원’이었던 ‘부르짖음(tse'aqah; ze'aqah)’에 구원으로 응답하셨다(특히 탈출 3,1-12). 그러므로, 구원을 위해 행동하게 하는 하느님의 이 사랑 ‘까리따스’를 이름으로 받은 우리는 ‘긴급한 순간이나 여러 상황에 구체적인 방식으로 응답’해 온 사명 수행의 연속성 안에서 모든 피조물의 부르짖음에 응답하고자 한다(회헌 18). 취약한 이들의 상황을 먼저 알아보셨던 예수님의 “깊은 연민과 자비로운 사랑”은 우리의 응답에 활력을 더해 줄 것이다(회헌 14).

통합 생태론의 비전을 향하여

지금처럼 생태 문제를 ‘위기’로 인식하지는 않던 때에도, 우리의 수도 공동체에서는 자연을 돌보고 보존해야 한다는 가치관이 청빈의 가치와 결합되어 불편함을 감수하는 선택들로 이어지곤 했다. 그렇게 불편함을 감수하는 삶의 방식이 지속 가능하지 않은 방향으로 향해 가는 사회의 흐름을 거스르기도 했지만, 기술관료적 패러다임의 시대에 살아오면서 자연스럽게 효율과 편리를 우리의 선택 기준으로 받아들이기도 했다.

지구의 부르짖음, 지구의 고통과 함께 취약한 처지로 내몰리는 사람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서 우리는 모든 것이 서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오늘날의 문제들에 대해 세계적 위기의 모든 측면을 고려하는 시각이 요구됨을 절감하였다(Ls 137). 관구와 준관구 단위에서 전체 회원이 참여한 교육 또는 학습의 기회가 우리 시대의 복합적인 위기에 대해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 많은 회원들이 통합 생태론의 비전에 따른 삶을 살려는 의지를 다지게 되었고, 작은 것에서부터 실천해 나가기 시작했다.

특히 생태 경제학 목표와 관련된 교육이 계속 필요하다. 가난한 이들과의 연대·나눔을 위해 우리는 지금까지 절약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하지만, 오늘날의 경제 구조에서는 소비에서 금전의 절약을 기준으로 삼는 것과 윤리적인 선택이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자주 경험하게 된다. 그에 따라 경제 생태론에 대한 교육 및 자료의 공유, 소비에서의 절제와 용기 있는 선택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2017년에 개정된 회헌은 “우리 수도회 청빈의 특징”에 관한 조문에서 “사회 정의와 평화 및 창조계의 보호를 위한 교회의 공동 임무에 참여하도록 노력”할 것을 언급한다(회헌 56). 청빈의 실천이 단순한 절약에 그치지 않고 소비와 투자에서의 윤리적인 선택으로 이어지도록 수도회 차원에서도 문화를 조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제도를 마련해 나가야 하겠다.



イエスのカリタス修道女会

Laudato Si'7つの目標についての熟考

Laudato Si'の目標と会のカリスマ

教皇フランシスコは、地球と貧しい人々が味わう苦しみの深刻さを「叫び」と表現して、私たちの応答を促している。この「叫び」は、今日の生態的・社会的危機に対して、イエスのカリタス修道女会の霊的・カリスマ的アイデンティティにより一層忠実に応えるよう、私たちを「駆り立てる」(コリント人への第2の手紙 5,14)。

イスラエルの神は、「抑圧される人々の苦痛の叫びと嘆願」である「叫び(tse'aqah;ze'aqah)」に救いで応えられた(特に出エジプト記3,1-12)。従って、救いのための行動を促す神の愛「カリタス」を名前に頂いた私たちは、「緊急な要請や種々の状況に具体的に対応」する使命実現の連続性の中で、すべての被造物の叫びに応えるようにする(会憲18)。助けを必要とする人たちの状況を先にご覧になられたイエスの「心からの同情と憐れみ深い愛」は、私たちの応答に力を与えてくださるだろう(会憲14)。

総合的なエコロジーのビジョンに向かって

現在のようにエコロジーの問題を「危機」として認識しなかった時にも、本会の共同体では自然を大切に守るという価値観が、清貧の価値と結びついて不便さを甘受する選択につながった。このような清貧の生き方は、持続可能でない方向へと向かう社会の流れに逆らったりもしたが、技術主義パラダイムの時代に生きる中で、自然に効率と便利さを生活の選択基準として受け入れたりもした。

地球の叫び、地球の苦しみと共に脆弱な境遇に追いやられる人々の叫びに耳を傾けることによって私たちは、あらゆるものは密接に関係し合っており、今日の諸問題は、地球規模の危機のあらゆる側面を考慮することのできる展望を求めていることを痛感する(LS 137)。各管区・準管区単位での全会員が参加した教育または学習の機会が、現代の複合的な危機について理解する機会を提供してきた。これによって、多くの会員が総合的なエコロジーのビジョンに合う生活をしようとの意思を確認することになり、小さなことから実践し始めた。

特に、経済的なエコロジーの目標と関連した教育は、継続して必要である。貧しい人たちとの連帯・分かち合いのために、私たちはこれまで節約することに焦点を合わせてきたが、今日の経済構造では、消費から金銭の節約を基準とする事と倫理的な選択は必ずしも一致しないことがあることをしばしば経験する。それにより、経済的なエコロジーについての教育および資料の共有、消費での節制と勇気ある選択のための努力が求められる。2017年に改定された会憲は、「会の清貧の特徴」に関する条文で「社会正義、平和、環境保全に向けての教会の共同の務めに参加するよう励む」ことについて言及している(会憲56)。清貧の実践が単純な節約に終わることなく、消費と投資の倫理的な選択につながるように会レベルでも文化を作って必要な場合は制度化していく必要がある。

